

2023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2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23. 3. 23.(목) 14:00 ~ 16:14
- 장소 : 서울시 문화본부 회의실(한국프레스센터 4층)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 ◆ 일시 : 2023. 3. 23.(목) 14:00 ~ 16:14
- ◆ 장소 : 서울시 문화본부 대회의실 (한국프레스센터 4층)
- ◆ 참석자 (9명)
 - 위원장 : 000
 -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 배석자 : 000 팀장, 000 주무관
- ◆ 심의사항
 - 문화재 지정 전 사전심의(1건)
 -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2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2건)
- ◆ 보고사항
 - 허용기준 주민공람 결과 보고(1건)

(개의)

○ 000 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사업팀장 000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심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화재지정 전 화계사 대방 사전심의 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 000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연구팀의 000 연구관입니다. 화계사 대방에 대한 문화재지정심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신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니다.

제가 자료에는 실지 못해서 연혁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계사 대방은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고 있고, 신청 명칭은 화계사보화루인데 제가 선생님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명칭을 대방으로 해서 지정심의를 올렸습니다. 신청자와 소유자는 모두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입니다. 화계사의 주 연혁을 대방과 관련된 것만 대강 추려보면 고려시대 때 보덕암으로 열렸던 것을 1552년 지금의 자리인 화계동으로 이전했고 이름도 화계사로 고치게 됩니다. 1618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덕흥대군의 가문 혹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그 집안의 후원으로 인해서 중건하게 되었고요. 현재 우리가 오늘 지정하고자 하는 대방은 1866년 흥선대원군에게 사찰의 주지스님이 요청하여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보시면 대방과 관련해서 보수이력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1925년에는 아마 석축을 크게 장대석을 활용한 석축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91년도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2층이었던 중층이었던 건물을 지상에서 1층의 건물로 보이는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화계사의 배치도를 보시면 이쪽이 주요 입구이고 현재 오늘의 지정대상은 이 건물이 되겠고요. 기존 서울시에서는 대웅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곳의 명칭도 고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화계사 대웅전이 이미 1980년대 서울시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맨 끝에 가서 보시면 대웅전 지정에 따른 일대가 모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오늘 지정심의를 하게 되는 대방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면 오늘의 지정대상은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정되어 있는 대웅전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화계사 대방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간략히 준비했고요. 더 자세한 자료는 후면에 있습니다. 지정취지는 작년 6월 30일에 구청을 통해서 시에 접수되었고 22년 10월 6일 날 오늘 자리해 주신 000 위원님, 000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위원님들께서는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세부적인 의견은 위원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조사보고서를 보면서 아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연혁에 대해서 학예사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고종대의 지은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60



다. 11쪽, 창건시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1866년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때 고종이 예산을 지원해서 승방하고 불전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로 대웅전이나 관음전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웅보존하고 관음전하고 명부전은 별도의 연도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1866년의 공사가 이 앞에 있는 대방을 제일 먼저 짓고 몇 년 후에 대웅전 짓고 그다음에 관음전 짓고, 명부전을 짓는 이 순서대로 1870년대까지 공사가 진행되어서 일곽을 전부 일신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대방에 봉안되어있는 신중탱의 조성시기도 1867년으로 되어있어서 화기에 1866년에 대방을 짓고 그다음 해에 신중탱을 봉안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대방 건물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아랫부분 기단이 거의 건물만큼 높고 위에 올라서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위치까지 마당이 매립되어 버렸습니다. 당당한 모습이 사라지고 단층 건물처럼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988년인데 91년에 공사를 했죠. 91년에 이 앞에 큰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서 매립해서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가장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찰관계자들 말로는 흙을 걷으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000 주무관

참고로 뒤에 자료를 보시면 제가 PPT에는 넣지 못했는데요. 지정심의자료 5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매립되어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 000 위원

화계사가 조금 중요한 이유는 고종대 흥선대원군과 관련한 또 왕실과 관련한 사찰 중창 역사가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왕실하고 인연이 있어서 흥선대원군의 지원으로 처음 지어졌고 그다음에는 왕실의 비빈이나 상궁들이 시주해서 주변에 전각들을 짓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 과정들이 잘 나와 있고 또 화계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지식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결사를 하거나 활동을 했던 사례들도 많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편액들입니다. 추사 김정희와 문파들을 중심으로 좋은 글씨들이 많이 남아있고 여기서 여러 활동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910년 만일염불회가 개최되는데 만일염불회 장소가 대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1910년대 이후 여러 곳에서 개최되는 만일염불회에 비해서 초창기에 속하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또 조선어학회에서 일제강점기에 한글맞춤법통일안 그것들을 하는 일종에 공청회 같은 것을 했는데 두 번째 공청회를 대방에서 했던 기록이 있고 그 사진들이 남아있습니다. 건축적 특징은 혹시 평면도가 있습니까?

○ 000 주무관

제가 평면도를 넣지는 못 했고요. 대신 가지고 계시는 자료의 뒤페이지 9 페이지를 보시면 평면도를 추가했습니다.

○ 000 위원

평면도를 설명 드리면 가운데 대방이라고 쓰인 큰 방이 중심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 칸은 10척이고 그 옆의 칸은 9척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쪽 대응전을 마주 보고 중심성을 지키면서 중간에 예배공간을 만든 것 같고 그 옆으로는 도면에서 보시기에 왼쪽은 7척씩 3칸을 옆으로 달았고요. 오른쪽은 8척씩 2칸을 단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고 또 1938년에 기록을 보니까 여기가 30칸의 69평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83평의 40칸입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증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오른쪽 윗부분 증무소로 쓰이고 있는 이 부분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보이고 또 대방 왼쪽에 보이는 창고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부엌이었습니다. 이쪽도 상당한 공사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방하고 앞쪽 누마루 정도는 19세기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좌/우로는 필요에 의해서 증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면은 그렇고요. 구조는 여기가 상당히 19세기 후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기둥들 이것은 다 원기둥인데 측면하고 뒷면은 각기둥을 썼습니다. 잘 보여야 하는 곳에만 원기둥을 쓰고 안 보이는 곳은 각기둥을 쓰고 또 익공을 썼는데 익공도 보이는 곳에만 익공을 쓰고 안 보이는 곳은 익공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양식은 초익공 양식인데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익공하고 다르게 이 부분이 초익공이지만 그 부분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상당히 높여서 도리 밑에 장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두텁고 소로가 끼워진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붙여서 20세기에 많이 보이는 딱지 소로의 원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



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초익공인데 초익공이 나오고 그 위가 보머리가 올라가는데 보머리 바깥에 쇠선을 하나 더 붙여서 그냥 보기에는 이익공처럼 보이게 하는 장식된 수법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19세기에 건축경향하고 일치하고 있고요.

화계사의 경우 침계민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승장이 공사를 했던 기록이 있고요. 같이 했던 부편수들 둘이 기록이 나오는데, 세 명에서 전국의 사찰들을 많이 해서 장인들의 계보나 기술들을 연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장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화계사 대방이 19세기 대방의 건축적 특징을 잘 갖고 있다는 점이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조선후기 불사에서 왕실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건축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또 잘 알 수 있고 특히 생산에 관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대기의 역사적 사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서울시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했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이 특히 마당부분의 원형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계사 쪽에서 신청서를 할 때는 화계사 보화루라는 명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썼는데 여기 편액이 '학서루'라는 말도 있고, '보화루'라는 말도 있고, '화장루'라는 말도 있고 명칭이 세 개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루마다 조금씩 다 같이 달려있는데 누마루는 보화루라고 하고 이쪽 마루는 다르게 부르고 그랬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기록에는 화계사 대방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합니다. 문화재 지정명칭은 화계사 대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침계민열이라는 그 위에 호가 추사 김정희 보면 보물로 된 것도 침계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침계라는 글자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윤정현이라는 추사의 제자뻘 되는 호가 또 침계네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면...

○ 000 위원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뭔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 000 위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편수고 거기는 일종의 제자이니까 침자가 애매한 것 같아요. 침계.

○ 000 위원

찾아보겠습니다. 침계민열이라는 승려가 화계사를 짓고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으면서 왕실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어디 판전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 000 위원

그러니까 봉은사 판전 때는 침계민열이 목수 부편수였고요.

○ 000 위원

그걸로 또 추사가 썼잖아요.

○ 000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집단이 승려집단하고 사대부라고 해야 하나요. 집단들이 같이 다녔어요.

○ 000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이 호가 같아요. 보세요. 부편수 윤정현이라는 사람도 호가 침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쓴 게 보물로 됐더라고요. 글자가 침계 윤정현 추사 이렇게 치면 나오더라고요.

○ 000 위원장

오른쪽에 있는 종무소 건물에 있는 사진들은 없어요? 그쪽에서 본...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7/60



마당에서 거꾸로 본 것 말씀하시는 거죠?

○ 000 위원

대응전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000 위원장

대응전에서든 종무소 반대 쪽.

그러니까 이 종무소 있는 이 날개 부분도 같이 처음 지을 때부터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 000 위원

아니요.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자였던 것이 T자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붕도 어색하고요. 그냥 T자가 아니라 옆으로 해서 마당을 침범하지 않게 나가는 것이 후대에 증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000 주무관

불편하시긴 한데, 가지고 계신 지면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측면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6페이지 위에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사가 흥선대원군 글씨를 가르치거든요.

○ 000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 000 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추사체인 거예요.

○ 000 위원

아, 저기 침계라는 글자가 추사가 침계인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8/60



- 000 위원
추사가 이런데 활동하는 게 흥선대원군 선생이다. 이런…
- 000 위원
그렇죠. 이게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되겠어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사찰에 가서…
- 000 위원
살롱 같이. 건축과 재미를 가는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교수님, 그런데 저기 매립된 것이 대웅전 쪽도 그때 매립된 건가요?
- 000 위원
아니요. 대웅전 쪽은 원래 그 마당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사지니까 이쪽 마당이 있었는데, 이쪽 마당을 높여버린 것이죠.
- 000 위원
중간에 어떻게 보면 석축이 있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38년에도 문 같은 것은 꽤 달라져 있는 것 같고, 이 석축을 메우면서 결정적으로 밑부분이 다 달라져서.
- 000 위원
석축을 메운 것이 91년이거든요.
- 000 위원
그런데 아까 사진 네 가지 비교한 것을 좀 보여주시면 38년도에도…



그냥 다 넣으시지 왜 일부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 000 위원

나중에 단청은 조금 정성을 들이지 않고 칠한 것 같아요. 너무 생경해요.

○ 000 위원

88년도에 이미 여기를 보시면 이때만 해도 창이 없었는데 창을 달았고요.
여기도 바뀌었고요.

○ 000 위원

좀 변형이 됐어요.

○ 000 위원

예, 이것과 비교하면 이것도 바뀌었고 이미 변형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다 바뀌었고요.

○ 000 위원

창 같은 것은 다 바뀌었다고 봐야죠. 위치가 맞느냐, 그 정도를 보는 거
지.

○ 000 위원

그래도 이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 000 위원

그러면 저 밑에 누마루로 추정되는 밑 공간 같은 경우 전혀 접근이 안 되
는 거죠?

○ 000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사가 생겨요. 여기서 계단
으로 올라오면 마당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하실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뒤로 돌면 문이 있는데 거기로 지금 들어가서 지하실이 있어요. 들어
가 보면 보강을 하려고 바깥의 목구조는 그냥 다 놔두고 있고요. 안쪽에
다 콘크리트로 구조를 만들어서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석도 남아있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0/60



고...

○ 000 위원

연도는 없어요?

○ 000 위원

연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 000 위원

그게 없어졌을지도 모르겠네.

○ 000 위원

잘 안 보입니다. 아무튼 뭔가 이렇게 싹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고 보강을 한 거라서 원형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지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 000 위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나중에 손볼 때는 원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 너무 크게 생기면서 여기를 이렇게 올려버린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를 올려버린... 저거를 그냥 파서는 이상할 것 같고요. 아마 할 거면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장

이거 한 12년인가 문화재청의 000 지금은 과장이 됐죠. 그분이 대방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대방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해서 그거 이후 몇 개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 같은 경우 지금 말한 땅이 묻힌 거라든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1/60



지. 날개 쪽에 있는 종무소 있는 그 부분이 초창기 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증축됐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아마 내 기억으로는 우리 문화재위원회 임기 말고 전 문화재위원회 때 그래서 등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찰 측에서 등재하기를 바랐는지, 안 바랐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등재하려고 하니까 가치는 충분한데 땅이 묻힌 거하고 종무소 있는 그 부분이 언제 증축되었는지 만약에 등재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할 건지, 그 부분을 빼고 해야 할지.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언제 증축됐냐는...

○ 000 위원

제가 추정하기로는 38년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들하고 칸 수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 두 부분이 없어야 개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50년대 사진을 보면 있습니다. 30년 대 후반에서부터 50년대 사이 그때 뒤가 증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축되었다는 흔적을 저희 지붕 위에도 들어가 봤는데 지붕 사이 안쪽까지 벽체가 들어온 것이 저쪽에도 하나 있고, 반대쪽인 부엌 쪽에도 있어서 끝 쪽은 다 증축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찰 쪽에서 올리지는 않았는데 대응보전 오른쪽에 있는 거기가 명부전이죠? 명부전이 1870년대에 지어지는데, 그 집하고 대방하고 양식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결국 나중에는 문화재심의회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대쪽에 관음각은 70년대에 불타서 새로 지은 거라서 해당사항이 없고요.

○ 000 위원장

진입계단, 6쪽에서 봤을 때 지하 묻혔다는 위치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없었던 생각이 드는 데요. 그 부분 지하는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까?

○ 000 위원

여기 지하라는 게...

○ 000 위원장

아니, 그 옆에.



○ 000 위원
여기요?

○ 000 위원장
예, 그것은...

○ 000 위원
이쪽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도 저것은 원래 없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사찰에 그런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 대방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 등재된 평수와 실제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다 수정한 다음에 등재해야지. 골치 아프거든요.

○ 000 위원
그런데 제가 그 개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맞습니다. 몇 평 30칸 했는데 그 면적을 해보려고 여기를 빼보고, 빼보고 해도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갔다 오신 분 생각은 어떠세요?

○ 000 위원
갔다 오신 분은 보고서에 충분히 지정가치가 있다고 쓰셨잖아요.

○ 000 위원
대방건축 중 성북동의 흥천사하고 화계사하고 1년 차이밖에 안 나고 이 두 개가 남아있는 대방건축들 제일 앞에 있는 가장 오래된 것들이고요. 서울에 많지도 않아서 서울시문화재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흥천사는 이미 문화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000 위원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000 팀장님, 서울시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 000 팀장

조사위원님 의견대로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향후 복원과정을 거치려면 지정되어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 000 위원

저게 한 150년 된 건가요?

○ 000 위원

예.

○ 000 위원

150년 되어서 70년 전에 증축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이 중에 반절을 했다고 나중에 다시 또 없애고 그러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 000 위원

그건 안 되죠.

○ 000 위원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 000 위원

역사인데,

○ 000 위원

변천사를 보는 것도 괜찮죠.

○ 000 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대방을 문화재로 한다는 것은 조선시대 말에 대방이라는 독특한 기능도 생겨서 그것을 문화재로 하는데, 사실 대방의 유형에서 물론 좌우대칭은 아니고 삐죽 나온 부분이 있지만 이것처럼 뒤를 이렇게까지 한 사례는 없어요. 그렇다하면 문화재로 지정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



게 구획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대방으로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오래됐다고 그리고 앞에 땅도 묻혀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언젠가 복원한다는 전제를 하든지. 그것 없이 무조건 대방...

그래서 그 당시에 000 씨가 책을 만들고 할 때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어요. 그 당시는 사찰 측에서 그렇게 문화재지정에 대한 요구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어쨌든 하자가 있는 건물이잖아요. 입면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증축된 부분은 거의 확실한데 연대가 언제 증축되었다는, 어디까지 증축됐다는 것이 명확히 있으면 선을 그어서 이것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애매하니까 제 생각에는 보류했다가 좀 더 그게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000 위원

그런데 이게 보류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더 나올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같은 건물인데 몇 칸은 지정하고, 안 하고 그것은...

○ 000 위원장

그러면 지정 못 하는 거죠.

○ 000 위원

그런 관례도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하셔야지. 기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 000 위원

광화문도 계속 바꾸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는데 그러면 저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해놓고 조금씩 의견을 줘서 예산을 들여서 연차별로 어느 연도까지 원형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등록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치는 있는데 조금 더 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저게 등재되면 저와 유사한 사례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꼭 대방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 그러면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 000 위원

이게 19세기 말에 생긴 건물이라고 하면 다른 사례가 들어오더라도 원형이 있을까요? 거의 다 어떻게든 증축하고, 고쳤을 거고 종무소가 붙은 것은 그냥 대방 기능이 원래 그런 거니까 가운데만 지키고 좌우는 방으로도 쓰고, 부역으로도 쓰고 그렇게 쓰는 것이 대방의 용도였기 때문에 종무소가 붙은 것은 대방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가 아주 없었는지 제가 확정을 못하는데 조금 있던 것을 크게 확장을 한 건지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붕 같은 곳이 실측되면 그것이 볼 때는 일제시대 때 기법이 보이기도 했고, 19세기말 것은 정확하게 확정을 못하겠어서 실측조사라도 되면 훨씬 좋아질 텐데 그게 아니고 사찰 측에서 자료를 보완하라고 하면 영원히 안 될 것 같고요. 조사가 필요하면 혹시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실측보고서를 하나 만들거나 그런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보류를 하고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시 심의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 000 팀장

서울시에서 문화재가 지정되면 정밀실측조사보고 또는 BIM 작업을 하거든요. 지정된 문화재에 한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고는 정밀실측 조사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형부분과 증축된 부분 전부 다 기록이 남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지정해놓고 조사한 결과 증축된 부분이라 하면 지정면적에서 제외...

○ 000 팀장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정밀하고 BIM 조사결과를 보고 논의하셔도 됩니다.

○ 000 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문화재 지정하든지 그냥으로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 000 위원
원형 복원을 전제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그런 식의 단서를 달고...
- 000 팀장
정밀실측조사 하고 BIM 작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따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날개 말고 대방 그 밑은 그냥 마루예요?
- 000 위원
바닥이요?
- 000 위원장
예, 바닥 밑에. 그냥 마루 밑에 보셨어요?
- 000 위원
밑은 안 봤습니다.
- 000 위원장
그다음에 옛날 부역으로 보이는 왼쪽 날개 부분의 가운데 부분 옛날에는 부역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방으로 있나요?
- 000 위원
거기 대들보가 엄청 크잖아요. 20척이니까 6m 짜리 대들보들이 가는데, 여기 부역이라고 했던 그 부분부터 한 칸이 떨어집니다. 높이가 달라요. 밑으로 갔을 거라고 보이고 목조조사 한 것을 보면 그을음이 있습니다. 불을 뚫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서 부역일 거라고 보입니다. 사찰에서 많이 바꾸기는 했습니다. 이게 보면 가운데 3칸 되는 기둥하고 대들보의 구멍들이 있어서 가벽이든 무엇으로 막았을 것으로 보여요. 다 한 칸씩 텅고 위쪽에는 불단들이 아직도 조금 있는데 그것들이 대응보전하고의 관계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평면도에서도 지금 방 창고 부분의 기둥 위치도 애매한 거죠?
- 000 위원
기둥 빼버린 거죠.
- 000 위원
예, 이쪽 벽체에 있는 기둥을 빼버린 거죠?
- 000 위원
예, 그런 곳들이 정말하게 조사가 안 되어서요.
- 000 위원
그 이후에는 고치지 않았나 봐요.
- 000 위원
기록은 없습니다.
- 000 위원
지붕은 다 간 것 같아요. 서까래까지는 놔주고, 그 위는 다 갈았어요.
- 000 위원
사찰에서 그냥 한 공사는 기록이 없습니다.
- 000 위원
유리문도 있고 다 있네,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000 위원
예.
- 000 위원장
사찰에서 한 1~2억해서 조사하는 용역을 할 수 없나요?



○ 000 팀장

지금 사찰에서 기초조사는 했는데요. 더 나가서 정말 BIM을 하기에는 사찰에서 힘이 달립니다.

○ 000 위원

실측보고서가 있기는 합니다.

○ 000 팀장

예, 있습니다. 80년대~90년대.

○ 000 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까지 판단이 안 된 거죠. 어디까지 원형이고 어디가...

사실 저는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은 아니거든요. 양식적으로나 목조가. 그런데 이런 편액이나 사건들이 건물이 그냥 사적처럼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만 기록해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겠다. 싶어서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거로 하면 문화재 서울시의 유형문화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 000 팀장

서울시 유형문화재.

○ 000 위원

다시 잘 고쳐서 보물로 한다든지 관찰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어서요.

○ 000 위원장

저는 일단 보류하고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해요.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렇게 하시죠.

○ 000 위원장

제가 문화재위원회를 이번 말고 저번 기회에도 했지만 경험상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 000 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정밀실측조사라든지 BIM 조사까지 거쳐서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것까지 거치려면 지정문화재로 보존이 돼야 저희가 후속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데 크게 안 들어가면 수년 전 일처럼 계속 수년 후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지정문화재 혹시 어려우면 문화재 자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정문화재로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 000 위원

문화재자료하고 지정문화재하고 차이가 많죠? 조사범위도.

○ 000 팀장

조사는 똑같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자료 정도로...

○ 000 팀장

문화재 자료로 해주시고 저희가 정밀실측조사 BIM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 나중에 복원의지라든지 사찰 것을 받아서 되면 저희가 유형문화재 올린다든지 그렇게...

○ 000 위원

그런데 문화재자료하고 유형문화재하고 등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000 팀장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등급은 있는데, 지정문화재로서는 지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문화재자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 000 위원

자료는 많이 낮죠. 자료뿐이 안 되는 거예요.

○ 000 위원

편역에 관련된 문화재지정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 000 팀장

아직까지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방 쪽은 그렇고 대응전 쪽은 저희가 지금 동산...

○ 000 위원

왕실에서 준 엄청난 불화들이 있습니다. 목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 있는데 2m가 넘는, 그것으로 사진을 간행해서 나누는 거죠. 불화인데요. 그러니까 자료가 워낙 좋은 게 많아서요.

○ 000 팀장

지난 동산문화재분과에서 서울시유형문화재 건으로 심의한 적도 있고요. 발굴이 되면 계속 동산 쪽은 별도로 올라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안 가본 분이 가볼 수도 있는 거고, 흥천사나 현재 대방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내 기억으로 그 앞에 있는 큰 건물이 있잖아요. 이것은 용도가 뭐예요?

○ 000 팀장

지금 식당 건물하고 사무소.

○ 000 위원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템플스테이 국제...



○ 000 팀장

회의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어느 정도 결론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

오늘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치는 있으나 좀 더 연구하죠.

○ 000 위원장

저는 화계사 자주 갔잖아요. 화계사 같은 경우 사실 건물을 가보시면서 대방의 외관에서 보는 이미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아요. 분명하거든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는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건물의 문화재를 할 때는 원형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후에 증축되고 그 후에 변화된 것 연대가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000 위원

보류하고 사찰의 사진이라도 있을 거니까 자료를 좀 찾아서...

○ 000 팀장

용역한 결과 없습니다. 한 번 더 보고, 다음 달에 지난번에 안 가신 위원님들과 한 번도 안 가보신 위원님 계시면...

○ 000 팀장

첫 번째 안건은 보류로 결정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홍지문 및 당춘대성 일부구간 성벽복구 및 주변탐방로 준비설계안건입니다.

(사업관계자 등 입장)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2/60



탕춘대성 성벽붕괴 구간 및 주변정비공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문화재개요부터 설계도면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개요입니다. 지정명칭은 홍지문 및 탕춘대성으로 지정일은 76년도 6월 25일이고 조선시대로 시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부 연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입니다. 아래쪽에 상명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가 있고, 여기에서 등산로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등산로 입구부터 정상부에 올라가는 암반까지가 금회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지정 고시도면에서 본 저희 정비구간의 현황위치입니다. 사업추진은 2021년 4월 달에 예산신청해서 서울시문화재심의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소요기간 및 공사비는 총 착수일로부터 60일 그리고 공사비는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설공사가 있고, 성벽정비공사 여장 및 성벽해체 후 재설치가 19미터 그리고 탐방로 정비공사가 붕괴된 탐방로에 들어가는 시설물로 목재 흠막이, 돌계단, 물가름돌, 지반정비가 있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먼저 붕괴구간 성벽구간의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 성벽 가운데가 성벽이 붕괴되어있는 상태고, 붕괴된 좌우측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지만 붕괴의 영향으로 인해 배가 불러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 구간입니다. 이쪽은 여장이 남아있는 구간이 현재 붕괴되지 않은 구간도 여장 상부는 상당히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붕괴구간은 붕괴가 되면서 여장이 같이 다 붕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탐방로 정비구간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탕춘대성 성벽이 있고 이 앞쪽으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성벽과 탐방로가 가까워서 이쪽으로 흠들이 밀려내려 오면서 성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등산 진입 자체가 지형이 좋지 않아서 진입하기 힘든 구간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사면 쪽이 위험한 구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탐방로 정비 시 이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동일한 양상의 구간들입니다.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설계도면입니다. 말씀드린 상명대 부속 여자고등학교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등산로 진입로가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탐방로 정비구간의 총 길이는 214m 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정비하는 구간은 9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성벽이 붕괴된 구간으로 성벽 정비구간은 19m입니다. 탐방로 정비구간의 설계도면입니다. 사진으로 보셨듯이 토사유실로 성벽의 안전성에 위협을 주고 있고 길폭 자체가 좁아진 구간에 대해서 목재 흠막이를 설치하



고 지형 자체가 경사도가 있어서 등산객들이 다니기 힘든 구간에 대해서 돌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구간 동일한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형상 경사가 구간은 돌계단 설치 그리고 배수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 물가름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상세도입니다. 지금 돌계단 설치들어가는 형식은 지금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을 등성등성 돌이 나서 계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고 지금 여기가 국립공원 내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측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경사가 심한 구간은 돌을 중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폭이 좁아지고 사면의 안정을 꾀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목재를 이용해서 흠막이를 하고 뒤에 부족한 부분 흙을 채워서 이쪽 사면을 안정화시키고 이쪽으로는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재로 흠막이를 설치했습니다.

물가름돌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우수가 길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부분을 돌로 턱을 줘서 우수가 길을 따라 흐르지 않고 사면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입니다. 성벽정비구간입니다. 저희 정비구간 19m 중에 실제 붕괴된 구간은 13m이고 붕괴영향으로 배가 부른 구간 좌우측 3m씩 6m를 포함해서 총 19m가 저희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성벽 여장은 잔존높이까지 정비하고 붕괴된 구간에 대해서 잔존 높이가 없기 때문에 성벽하부 기준으로 두 단까지 정비하고 상부는 강회몰탈로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입면입니다. 현재 붕괴된 구간이 이 구간이고 좌우측으로도 배가 불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체 정비하는 구간은 지금 이 지점부터 이 구간까지 총 19m이고 여장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높이가 남아있는 구간에서는 해체했다가 잔존높이만큼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붕괴된 구간에 대해서는 두 단까지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단면의 형태입니다. 지금 상부가 붕괴되고 하부가 성벽이 불안정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해체하고 여장을 제가 말씀드린 붕괴된 구간은 상부 두 단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지금 여기 치수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상부 회곽로 폭은 1.5미터로 기준을 하고 회곽로는 점토다짐을 해서 정비하고 후면 쪽에 토공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심어서 녹화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른 구간 단면입니다. 정비방식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성곽면석



가공형태입니다. 지금 면적의 규격이나 가공형태는 현재 남아있는 성벽에 대한 기준을 현황조사해서 부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고운정다듬, 심석도 동일한 형태, 여장들 면적은 거침정으로 다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 두 단을 계획하고 있고 상부 두 단을 하면서 하부 속 속채움은 강회잡석다짐으로 채움을 하고 상부마감은 이제 방수층과 상부마감을 위해서 강회몰탈다짐으로 상부를 마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

여기 토사밀림 방지대 할 때 철근을 한 45cm 정도 420을 박았는데 철근이 오래되면 썩을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에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 토사에 묻혀 있어서요.

○ 사업관계자

말씀하신 대로 하부 쪽은 지하수위층이 노출되는 부분이라서...

○ 000 위원

철근은 금방 녹슬 텐데,

○ 사업관계자

예, 부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탐방로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국립공원 측 시설기준에 맞춰야 하는...

○ 000 위원

기준이 있어도 안 좋은 거 계속 따라하면 안 되고요. 조금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Copy Paste 하지 마시고요. 이형철근 쓰면 조금 있



으면 부식해요. 그래서 그게 좀...

○ 사업관계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충 처리하는 부분에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고 개선해야 발전하지. 잘못된 것 계속 쓰면 좋은 것은 아니니까. 부식될 것이 뻔한데...

○ 000 위원

그런데 붕괴된 석재의 양과 추가로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 사업관계자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붕괴된 성벽에 대한 부분은 하부 쪽 사면에 대부분 존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저희가 내역상 외부에서 반입되는 수량은 20% 총 써야 하는 양의 20%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 000 위원

20%.

○ 사업관계자

네, 그 20%도 대부분 여장돌로 들어갈 거고 면석 큰 돌들은 대부분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그 토사밀림방지대가 하는 게 거리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지금 목조설치한다는 것이 거리상.

○ 사업관계자

지금 목재 36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군데로 나뉘져 있고 한 16m, 20m 이 정도로 나뉘져서 두 군데 구간에 총...



○ 000 위원

그런데 저기 사람도 많이 가고 목재로 해서는 몇 년 지나면 썩으니까 차라리 구간이 얼마 안 되면 돌을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도면에 성벽하는 것 목재로 하지.

○ 사업관계자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보축처럼 돌로...

○ 000 위원

아, 밑에.

○ 사업관계자

지금 하부 쪽에...

○ 000 위원

그것 때문에, 돌로 하기는 뭐하겠네요.

○ 000 위원

토사밀림은 거기 어디 이쪽 하부에 하는 거죠?

○ 사업관계자

이쪽에다 놓는 겁니다.

○ 000 위원

성벽 붙여서?

○ 사업관계자

예. 포인터로 보이는 이정도 지점에서 폭을 조금 더 확보하고 이 정도에 설치해서 상부 토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철근을 바로 박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부식이 안 되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27/60

Email : sokgisa88@daum.net



거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사구간 20페이지를 보면 19m 복원하잖아요. 그런데 도면상으로 19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원인이 등고선으로 보면 성곽정비계획배치도를 보면 거기 물이 이쪽 고지에서 이렇게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빼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거 현상복구만 하시나요?

○ 사업관계자

지금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도 많이 바뀌어서 성벽 이 구간에서는 회곽로폭 뒤로는 바로 하부 쪽으로 경사가 되어 있어서 단면을 보시면 현재 지형 상태 자체가 성벽정비를 하게 되면 성벽 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고 다 반대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지형조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정비도 상부 마감할 때도 바깥쪽으로 물 구배를 뒤편 성벽 쪽으로는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최대한...

○ 000 위원

이쪽이 아까 등고선에서 우측일 거 아니에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그쪽에 직접 안 하고 우리 보통 일반적인 성벽처럼 처리해서 물길이 거기로 안 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러면 여기 토공사를 저렇게 다시 해요?

○ 사업관계자

지금 회곽로폭 자체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뒤쪽이 현재 현황상...



○ 000 위원

그런데 등고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라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를 보면 아까 성곽배치도 등고선 잘 그려오셨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런데 그게 급해서 잘라도 상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쪽쪽 내려가는 거랑 계단식에다가. 저게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 사업관계자

밑에 등고가 오히려 안 맞는 부분이고 현황 사진을 보시면...

○ 000 위원

정확도가 안 맞으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등고선이랑 아까 하겠다는 계획도랑 주변 토양에 어떤 식으로 변경돼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상부에서 흐르는 수로가 아니면 지금 다 홍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 때문이에요. 그 물을 어느 쪽으로 아까 배수 얘기도 하시던데 그 물길 이렇게 틀든지, 밑에 두든지 해서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얘기에요.

도면은 제가 보면 너무 작위적으로 그려 오신 것 같아요. 단면은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만 이쪽 등고선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잘라 보시면 그렇게 안 나와요. 단면 잘라보세요.

○ 사업관계자

현장조사도 제가 직접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000 위원

도면 잘라서 어느 면 잘라온 것도 아니고 편하게 한 거니까 이게 어디 단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29/60

Email : sokgisa88@daum.net



면이에요? 21페이지가. 아까 원위치로 가서 typical한 거 아니잖아요. 단면이 아까 등고선으로 봐서 어디 자른...

○ 사업관계자

지금 저희가 넘버 84번이니까 입면으로 보면 지금 이 구간이고, 평면에서 보시면 84번이면 이쪽 구간입니다.

○ 000 위원

이것은 지금 설계도면이라고 사실 하실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아까 84, 85 여러 구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쪽 이었을 때 등고선을 새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 사업관계자

예, 달라집니다.

○ 000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설계도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 000 위원

어쨌든 짓고 나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주변의 지형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 사업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

단면 잘라오신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 000 위원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올해 여름에 당장 비가 많이 옵니다. 빗물이 어디로 빠지게끔 설계하셨나요?



○ 사업관계자

배치상으로 보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이쪽에서 떨어지는 물들은 이쪽 방향으로 출수되고, 이쪽에서 떨어지는 물들은 이쪽 방향으로,

○ 000 위원

만약 여기가 강화되었으면 나머지 쪽은 계속 약한 상태일 텐데, 나머지 부분이 오히려 약해지는 그 좌우측이요. 더 썰려 내려가는 게 크지 않을 까요.

○ 사업관계자

성벽이 붕괴된 것은 제가 2004년도에도 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도 붕괴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좌우측 성벽이 그 당시에도 유리가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도 동일한...

○ 000 위원

저는 이것 말고 돌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돌계단은 기존 돌계단들이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가져와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번에 저런 류의 디자인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통상적으로 산에 들어가는 돌계단 자체는 크게 양식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앞에 돌로 면석을 두고 뒤쪽에 수평구간에 대해서 흙을 채우고 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 000 위원

그 주변에도 저런 류의 돌들은 이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다음에 20쪽예요. 이거랑 저희랑 다르네요. 여기에 계획이 나오는데 여



기는 완성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높이 나 돌 크기 추정은 어떻게 하실 것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옆에 있는 도면은 낮기도 하고 돌들이 작은 돌의 표가 두 칸 밖에 없는 것도 애랑 좀 다른 것 같고 그렇거든요.

○ 사업관계자

일단 면석의 크기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아있는 성벽 돌의 크기를 기준으로 했고 지금 보시면 이쪽은 과거에 한번 정비를 했던 것으로 유추되는데 돌 자체가 작고 이쪽이 거의 원형 성벽에 가까운 구역인데 이쪽 성벽에 대한 면석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작성했고 여장도 동일하게 이쪽이 총안도 남아있고 여장이 잘 남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이게 두 단 정도를 잘은 돌로 올리셨는데 여기도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흠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런데 여기 총안 같은 경우도 진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 사업관계자

여기가 붕괴가 되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쪽처럼 남아있는 구간을 정비하면 당시 총안 남아 있는 것을 맞춰서 정비를 할 텐데 이쪽은 붕괴돼서 현재 여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총안이나 타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소기준인 하부 두 단까지를 정비계획으로,

○ 000 위원

여장 기초만 한다는 거죠, 기단부만.



○ 000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돌계단 단면도 B 있잖아요. 계단에, 이걸 뭐라고 그러나. 이게 뽕짝이 안 맞으면 올라갈 때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이 우리 보폭이랑 안 맞으면, 이 넓이랑 높이랑, 한 발도 아니고 두 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학교에 비슷한 것을 저렇게 멋있게 지었다가 나중에 건설사랑 무지 불편해요, 이게 안 맞아서. 보폭이랑.

○ 사업관계자

예. 말씀하신 대로 한 쪽 발로만 돌아가게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 000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맞출 수 있게끔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도면상 나타나는 거랑 짓고 나서 사용하는 거랑 이게 에러들이 생겨요, 그런 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런 거는 비슷하게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 000 위원

아시죠? 엉뚱한 데 그런 게 많아요. 건축가들이 설계 잘못하고 있고. 그런데 저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 000 위원

지금은 600이니까 꽤 넓군요. 저게 폭이 1,500짜이나 필요할까요?

○ 사업관계자

이것은 표준적으로 1,500을 썼는데 길 폭에 따라서 사실 변동의 차이는 있습니다. 좀 좁은 데는 1m에서 1.5m 사이 정도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길을 넓히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 000 위원

번갈아가면서 올라가게끔 가는 길로 가줘야지 올라가고 또 이걸 또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 사업관계자

예,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지금 variation이라고 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촘촘히 할 건지 아니면 진짜 넓혀서 거기서 한 발 더 밀고 그다음에 이 발로 할 건지.

○ 사업관계자

예.

○ 000 팀장

관계자 분 나가계십시오.

(사업관계자 등 퇴장)

○ 000 위원장

그러면 조건부 통과?

○ 000 위원

아까 그 철근은 얼마 못 가서 부식돼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야 해서 저것은 재료를 바꾸든지 해서 조금 용법을 바꾸든지.

○ 000 위원장

조건을 불러주세요.

○ 000 위원

부식 가능성이 높아서 재료를 다른 것을 쓰든지.

○ 000 주무관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부식 안 되는 재료를 사용해서 하라고 조건을 달겠습니다. 계단 보폭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000 팀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입장)

세 번째 안건은 가회동 백인제 가옥 안채 CCTV 추가설치 건과 관련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백인제 가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백인제 가옥 운영방식을 원래 기존에는 해설 예약을 하신 관람객들만 내부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내부관람에 대한 관람객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저희가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안채를 수시로 개방해서 관람객들에게 최대한 관람혜택을 많이 드리고자 해서 거기에 따라서 CCTV가 추가로 설치돼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 보시면 코로나 종료 이후에 관람서비스 차원에서 관람정책을 바꾸게 되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추진방법에는 CCTV는 별개로 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전시물을 보호하고 그 직원들의 안전과 전시물 보호를 위해서 CCTV가 공간별로 추가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방 예정지는 백인제 가옥의 안채인데 백인제 가옥이 크게 세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채, 안채, 별당채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안채 정도를 개방하면 관람객들에게 관람혜택을 더 드릴 수도 있고 사랑채나 이런 별당채 같은 경우에는 마루방식이나 이런 게 장마루처럼 된 것도 있고 해서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안채를 개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안채를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채 도면인데 안채가 크게 방이 네 개 정도가 있습니다. 안방, 며느리 방, 할머니 방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대청에서 각 공간별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다섯 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을 보시면 이 선이 백인제 가옥 CCTV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 아니라 유선 방식으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해야 해서 필수적으로 유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최대한 기둥 쪽에 붙여서 훼손이 덜하게 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기존 저희 무인감지센서가 설치되어있는데 2센치 정도 되는 피스를 박아서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타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문화재 변경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피피티는 이 정도입니다.

○ 000 위원

사랑채는 개방을 안 하시고 안채만요?

○ 사업관계자

예. 그게 처음에 백인제 가옥이 근대한옥이라 사랑채를 개방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 아까 안채 근무자를 상시 배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사랑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들어왔을 때 통제하는 그런 거나 그다음에 관람객 분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으면 자기들은 무방비로 노출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사랑채보다는 안채를 개방해서 수시로 오는 분들에게 관람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2층 다락도 개방을 안 하시는 거죠?

○ 사업관계자

예. 다락까지는 개방할 수 없고요. 이게 가 보신 분은 아실 건데 경사가 굉장히 높아서 관람객 안전 관련해서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 000 위원

현재 사랑채, 별채 관람 해설을 신청하면 돌잡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안채는 자유로 드나들게 하면 오히려 관리하시기 더 힘드실 거예요.

○ 000 위원

문화재 관리는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에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좋겠고 지금 머느리 방은 왜 두 개를 하는 거예요? CCTV를?

○ 사업관계자

머느리 방이 두 개가 아니고요. 한 개는 머느리 방에 비추고 한 개는 대청을 감시하려고.

○ 000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어차피 전선이 관을 매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얘기한 것이 처음에는 구멍을 뚫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문화재에 손상이 가게 되니까 그냥 선을 문틈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손상이 안 가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2센치짜리 피스를 박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도는 하더라도,

○ 000 위원

그런데 전선만 묻으면 비닐이나 고무 같은 나일론이잖아요. 그게 쥐나 이런 게 뜯어먹으면 화재 염려가 있으니까 그 가에 무슨 쇠파이프나 뭘 대야 하는 거 아닌가?

○ 사업관계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저희 전기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선을 따라서.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7/60



그 선이 쥐나 뭐 이런 게 잡아먹어서 화재 위험 같은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화재가.

○ 사업관계자

제가 지금 백인제 가옥 4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 000 위원

4년이 아니고 40년 해도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철저히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럼 저걸 설치할 때 목재에 나사로 해요, 아니면 본드로 붙여요?

○ 사업관계자

2센치짜리 피스를 박을 예정입니다.

○ 000 위원

2센치 몇 개? 4개?

○ 사업관계자

카메라 하나당 2개 정도로,

○ 000 위원

2개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 사업관계자

지금 이게 두 개 박혀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 000 위원

그런데 저거 유리죠. 거기에 그냥 붙이면 안 되나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38/60

Email : sokgisa88@daum.net



○ 사업관계자

부착 방법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선을 그대로 쓴다고요? 까맣게 나와 있는 거?

○ 사업관계자

아니요. 저 선이 깔려 있는 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 라인으로,

○ 000 위원

그런데 업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이런 걸 덮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관을 쓴다든가. 그런데 그게 조금 가보면 어쩔 수 없이 쓰지만 보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덮개 같은 것 반원으로 뒀다든지 색깔도 좀 맞추고 성의 표시가 돼야 할 텐데 재네들은 그냥 자바라 같은 것을 짹짹 깔고 그렇게 문화재 감이 없거든요. 빨리 끝나고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몇 가지 계약할 때 조건들을 달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예. 저희가 필요한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손상이 적은 부착방법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저거 다 성능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러면 저게 인터넷이 어디에 가있어요?

○ 사업관계자

지금 그래서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방에 다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밑에,

○ 000 위원

데이터를 저기서 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KT로 보내요?



○ 사업관계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 000 위원

이 라인은 뭐예요?

○ 사업관계자

이게 CCTV 연결선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서울시도 저 데이터를 여기 시청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가서 받아와요?

○ 사업관계자

서버 자체가 백인제 가옥에 기존에 있는 CCTV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 000 위원

요즘 시대에 조금 원시적인 것 같은데. 다 인터넷 깔면 여기서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옛날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청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그래서 현장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데, 백인제 그럼 또 한 달만에 가서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사고치고 도망가면 그건 사후약방문인데.

○ 000 위원

담당자는 이걸 앱으로 해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 해야죠.

○ 000 위원

CCTV 보는 방은 없어요? 그럼 설치한 건 누가 보는데요?

○ 사업관계자

맞은편에 보안 선생님이 계시고 해서 거기서 다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니다.

○ 000 위원

그거 구식이에요.

○ 000 위원

저렇게 화재가 나면 누가 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 사업관계자

그리고 백인제 가옥은 24시간 문화재 경비인력이 상주하고 있어서.

○ 000 위원

내가 보기에는 조금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만 붙여도 우리 집 비어있을 때 딱 붙여놓고 하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 사업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 시설과에서, 통신장비 업체를 저희 박물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가 있어요.

○ 000 위원

개네들은 버전 낮은 거를 줘요.

○ 사업관계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협의가 있었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내년도 시설과에 협의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업자가 계약하면 6개월 되면 훨씬 나은 거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다 데이터 저장하는 것보다도 저기도 하고 시청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금방 나와요.



○ 000 팀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사업관계자 등 퇴장)

○ 000 위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지금도 해설사 따라다니게 하는 것은 손상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로서 하는 거고 그런데 저기에 누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후약방문이죠. 뭔가 훼손이 되거나 없어지고 난 이후에 발견되는 건데 그럴 위험을 문화재에 굳이 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설치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죠?

○ 000 위원

네. 저는 설치 반대합니다.

○ 000 위원

추가라고 하니까, 지금은 사랑채에만 있어요?

○ 000 위원

이분 말씀이 사랑채하고 별채는 해설하게 하고 여기는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고 이중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오히려 인력은 더 들고 관리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괄해서 관리를 하는 게 낫죠.

○ 000 위원

지금 CCTV를 외부에 했는데 내부에 추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랑채와 2층 부분이나 별채 부분은 개방 안 하겠다는.

○ 000 위원

교통에서 가짜 CCTV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워닝도 줘요. 그러니까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반달리즘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고 저것을 실제적으로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하고 뭐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 위원님은 손상 때문에,

○ 000 위원

네. 누군가가 저걸 계속 돌아다니면서 봐야 하는데.

○ 000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반대로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문화재 궁내에도 다 있어요. 송례문 화재 이후에 화재가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반대하는 하는 너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설치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반대하겠어요.

○ 000 위원

내부까지 다 하고 있다고요?

○ 000 위원

내부에 다 있죠. CCTV 다 있어요.

○ 000 위원

사시잖아요. 실제 상주하시잖아요.

○ 000 위원

상주하고 있고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을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 000 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것하고 관람객이 항상 상시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인데.

○ 000 위원

상시 관리를 하더라도 CCTV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43/60



- 000 위원
돌아다니게 하지 않더라도요?
- 000 위원
지금 개방하기로 했다는 건데 개방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 000 위원
그것을 관여할 수 없다고요? 아~ 그래요? 개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럼 할 말이 없네요.
- 000 위원
개방 원칙에 대해서 시에서는 안전장치를 두겠다. 그런 건데 우리가 안전 장치를 그러면 다른 것을 뭘 줘야 하는지를 해 주지 않으면...
- 000 위원
경관이나 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조건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 000 위원
그러니까 선 관리라든가,
- 000 위원
관이 있잖아요. 전선만 두면 쥐가 잡아먹으면 화재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궁에서는,
- 000 위원
결국 그거를 감싸야 하거든요. 목재에 옮겨 붙지 않도록.
- 000 위원
궁에서는 다 쇠파이프 안에 넣어서 그것을 배관을 다 했거든. 그런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덕수궁 중화전이고 뭐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 을 안전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안전과 경관을 고려 해서 설치하라는 거지.



○ 000 위원

기존 주요 문화재에 이미 설치한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000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지. 쇠파이프 안에 전선이,

○ 000 위원

그런데 5와트 10와트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USB 교류전원 수준이라 화재 위험이 크지는 않고 지금 이미 있는 전기선이 더 문제이고 그것을 잘 따라가야 하는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업체에서 설계를 해온 게 아니라 그냥 해오신 거라 이게 천장 위로 간다고 했는데 방은 천장 위로 가지만 튕마루로 나오면 이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로 가든지 이것을 잘 보면서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가는 지점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것들은 좀 천장에 바로 보이지 않고 처리를 하라고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 000 위원

파워랑 쏘으면 그다음에 여기서도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네요.

○ 000 위원

제가 만약에 관리자면 무선 쓸 것 같아요. 저녁에 다 충전해놓고 24시간 가거든요, 요새. 착착착 붙이기만 하고 다시 회수해갖고 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새, 집에서 무선 많이 쓰면서 저것을 꼭 선을 저렇게 해야 하나.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추진을 못 할 것 같고 저는 문화재 훼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2센티 피스 박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박았으면 서.

○ 000 팀장

최종결론 내주십시오.

○ 000 위원

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시공할 것.



○ 000 주무관

원안 동의하되, 면밀히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아까 제안한 대로 서울시에서 그런 게 있으면 중앙관리하는 쪽으로 자꾸 하나씩 갔으면 좋겠어요.

○ 000 주무관

발표자가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왔는데요. 그쪽에서 관리하는 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전달하겠습니다.

○ 000 팀장

세 번째 안건은 원안가결로 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입장)

네 번째, 다섯 번째 안건은 천도교 중앙대교당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항으로 기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안건입니다.

○ 사업관계자

우선 84-2번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상변경 허가 변경 심의 건입니다. 84-2번지이고요. 작년 2월 24일에 조 건부 가결이 났던 안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복기하면 천도교 중앙대교당 측 담장은 기존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의 담장 디자인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완. 천도교 중앙대교당 측 입면의 창문은 교당의 종교적인 기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 천도교 중앙대교당 측 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함. 설계도서 등 보완자료는 문화재위원 검토 후 확정.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 장에서 하나 하나 반영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영됐던 내용으로 7월 27일에 현상변경 허가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가 건축허가 협의를 하면서 천도교 측이 아니라 한옥을 맞이한 도로 측에 건축지정선, 담장하고 처마로 지정



선을 풀었는데 그 면을 3분의 1 이상 지정선에 맞춰야 한다는 건축 주무관 쪽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측에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했었는데 지정선 측의 입면이 제일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도로경계선에서 몇 미터 후퇴하셔야 하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후퇴를 못하고 면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 이행 조건 반영 사항 1번. 천도교 중앙대교당 측 입면의 창문은 교당의 종교적인 기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 그래서 반영 검토 내용은 현상변경 허가 완료인데요. 이 창을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고 옥탑 층에 창문은 삭제했습니다.

변경사항 2항이고요. 옥탑 삭제 혹은 위치변경 고려. 그래서 문화재 현장 협의 후 존치 결정, 7월 21일자. 이것은 존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대교당 측 경계선에서 2~3m 이격. 1m 이격거리 확보로 현장에서 봤는데 2m를 확보해서 최대한 식재를 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건반영 4항이고요. 대교당 측 신설 담장은 개구부 삭제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한식 담장 설치한다. 그래서 이때 연결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가 없다가 그랬는데 천도교 측의 요구 조건은 이쪽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기존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의 담장 개폐문은 삭제하고 디자인의 연속성을 고려한 한식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심의이행 조건 반영사항 5번이고요. 84-2번지 기존 건축물 사진 첨부(계획안과 높이 비교), 기존 건물 높이 7.5m에서 0.96m 낮은 기존 건축물의 처마 끝 선과 비슷한 높이의 6.54m 높이 계획으로 이행했습니다.

목차, 문화재 개요, 위치도 및 주변현황, 사업추진 경위, 설계개요, 투시도,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굴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84-2번지.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고요. 계획대지 경운동 84-2번지, 종로경찰서, 안국역, 운현궁, 덕성여대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계획대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 (심의구



역)에 해당됩니다. 계획대지의 주변현황 사진입니다. 1번 사진부터 계획대지에서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본 모습입니다. 2번 계획지에서 단독주택들을 본 모습입니다. 3층 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연결해서 도로를 두고 업무시설 10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84-2번지 건축물의 경계선에서 중앙대교당까지는 약 12m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고 현재는 다른 건축물이 여기 있습니다. 84-2번지의 지금 철거 후 현황사진이고요. 천도교 대교당의 모습입니다. 84-4번지 2, 3, 4번지가 2층 건물이고 높이 약 8m고요. 대상지에 원래 있었던 건축물은 2층 양옥건물 높이 약 7.5m 현재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4-4번지 같은 내용이고요. 사업추진경위 D구역 심의구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000 위원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얘기하니까 인포메이션도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 000 위원

질문을 받을까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지정건축선 맞추는 것 때문에 문화재와 관련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건부 의결한 내용 중에서 계단 탑 쪽에 창고 내는 것 막아달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막아달라고 한 이유는 애초 계획에 여기 옥상에 테이블도 놓고, 날씨 좋은 날 와인도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여기가 마치 문화재를 바라보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이 문화재 측에서 봤을 때는 보기가 싫으니까 그것을 막아주십사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평면도 28쪽에 투시도도 보여주십시오. 그 의도에 맞추는 여기 이쪽 편을 보시면 난간 여기에 유리난간을 설치하셨어요. 평면도를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막아달라고 했던 그 취지와 여기가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바닥으로부터 우리가 1.2m 이상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불투명한 난간으로 해주셔야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서리를 열어 놓으면 여기를 다 열지 말라고 했던 그 의도를 훼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한식담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한식담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 사업관계자

예, 이것은 저희가 투시도상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오기 전에 여기 있는 담장의 같은 형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저렇게 하시면 저거는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 사업관계자

죄송합니다. 당연히 한식담장으로...

○ 000 위원

변경하고 나니까 Y2, X2의 기둥이 위치가 기둥 없애고 지하층에서 2층 탈 때 1층의 기둥을 설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지하공사하면서 H형강을 줄이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향타로 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천도교 건물이 조적조라 그것을 향타로 인한 진동을 할 수 없으면 좋을 텐데 그게 우려가 돼요. 도면 39페이지를 보시면 H형강 쪽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토공사할 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때려 박잖아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굉장히 인접되어 있어서 그게 우려되어서 공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입니다. 구조물, 구조레이아웃이 기둥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도면 26페이지를 보시면 변경 전, 변경 후를 보면 지하층 1면 평면도에



보면 기둥 없어요. X2, Y2에 그게 없어졌잖아요. 변경 후 4개 중에 그게 없어지고 계단실 벽체에 태운 것 같은데 다음 도면을 보세요. 그게 작아서 거기 올라타기 어렵거든요. 그거는 아마 손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예, 저희가 좀 더 구조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 000 위원

아마 바꾸시면서 생각안 하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지금 이거 처음 온 것이 한 1년 됐죠? 그래서 몇 차례 해서 통과되었는데 지금은 도로변까지 건축선 부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증축되었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 000 위원장

늘어났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야지. 오늘 안건은 바로 저거거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 제16조 전문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 000 위원

20쪽부터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제가 전문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보시면 3분의 2이상의 면이 지정선에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와 계속 협의하다가 돈화문 있는 쪽은 담장을 지정선으로 인정해서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사실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담장으로 보고 처마로 봐서 셋백을 시켜서 사실 면적을 해서 한옥과의 어울림을 생각하고 뒤쪽 천도교 측에서는 저희가 눌러서 하는 것으로 해서 뒤쪽에 대한 얘기가 저번 심의 때는 말씀을 좋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대부분 맞추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요.

○ 000 위원

건축선 맞추는 게 담장은 안 되고, 외벽으로 맞춰라.

○ 사업관계자

예, 맞아요.

○ 000 위원장

그것을 내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게 건축지정선 지구단위계획 제16조가 오히려 저렇게 되면 좁은 도로 폭에 건물이 셋백해서 더 좋은 조건을 더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 사업관계자

저희도 사실 그래서 한 6개월 오기 전까지 건축협의를 계속해왔는데 주무관청 측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저기가 인사동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의 건축물의 개구부의 높이를 맞추다든지.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건축이 있는 선들을 전부 맞추는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도 저희가 이게 좋아서 한 (안)은 아니었고요. 당연히 이것을 더 선호했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일정부분은 손실을 감해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을 어쨌든 유권해석 할 수 있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서울시 왔다가, 구청 왔다가 하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개인사업자로서는 그 일정을 할 수 없고 너무 큰 심의들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

○ 000 위원

외벽 면을 3분의 2로 맞추는다는 규정에서 담장을 외벽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것은 아예 허용이 안 되는...

○ 사업관계자

예, 안 돼요.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인사동이면 한옥이 많을 텐데 한옥인 경우는 처마 때문에 외벽을 못 맞추
잡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 사업관계자

그쪽이 담장으로 인정해주는지 여기 있습니다.

○ 000 위원

한옥인 경우는 담장으로 인정해 주고 한옥이 아니면 이렇게...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사실 여기도 왼쪽에 캐노피가 있어서 그것을 처마를 보면 그것을 맞춘다
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과하네요.

○ 사업관계자

사실 이 사이에 공간들은 계속 유지해서 여기는 외부공간으로 유지가 되
어있습니다. 이것을 안쪽으로 막게 되면 저희 생각은 어쨌든 최대한 공간
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상황이고요. 1년 전에 봤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
긴 한데 다른 내용들은 다 동의합니다. 2번지, 3번지는 역시 이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의 개인의 (안)이 아니라 종로구청하고 협의된
(안)입니까?

○ 사업관계자

예, 협의를 했습니다.

○ 000 위원

구청에서 주장을 한 거라는 거죠?



- 사업관계자
구청에서 주장은 하지 않지만.
- 000 위원
면을 맞춰라.
- 사업관계자
예, 지침.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한 어떤...
- 000 위원
보완을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 000 위원
1층은 들이미시면 어때요? 2층부터 3분의 2이상 넘으니까 1층을 더 들이미시는...
- 000 위원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이게 5번도 똑같은 00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뒤의 것도요.
- 000 위원
똑같은.
- 000 위원
똑같은 거니까요.
- 000 위원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 000 위원



그런데 5번도 똑같이 기둥 빼먹고 엉뚱한데... 똑같은 얘기. 아까도 지하 공법이 저는 기술적인 문제만 다루는 건데 틀려서 오니까 믿음성이 안가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저는 저기를 매주 일 때문에 가거든요. 저 좁은 길이 건물이 셋백 되어서 그게 좋은데 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로 선에 맞춰서 건물을 해야 하는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회의에 종로구 담당하는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저것은 난센스... 그래서 결국은 지난 번에 통과된 것에 비해서 평수가 늘어나잖아요.

○ 사업관계자

2층이 늘어났습니다.

○ 000 위원장

하여튼 평수가 늘어났잖아요.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3층 건물을 도로 선에 맞춰서 올렸을 때 좁고 압박감을 주는 것과 기존 통과된 (안) 어느 게 좋아요? 왼쪽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것을 설계자도 동의하고 건축주도 동의했는데 오히려 구청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더 앞으로 늘여서 좁게 해야겠다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 사업관계자

죄송합니다.

○ 000 위원

종로구청 아니에요?

○ 000 팀장

문화재과입니다. 건축과 직원이 아니라요.

○ 000 주무관

또 지구단위도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협의를 갔다



가 조건이 나온 거잖아요. 보완요건.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 000 주무관

지구단위지침이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벽면의 3분의 2가 벽면 지정선이 지정됐다고 하면 담장으로는 이게 한옥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 그 거리의 특색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주장을 하실 겁니다.

○ 사업관계자

맞습니다.

○ 000 팀장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계자 등 퇴장)

정리해주십시오.

○ 000 위원

제16조 전문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을 해석했는가. 해석을 잘못할 수도... 많이 있잖아요.

○ 000 위원장

법조항을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만 해석하느냐.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000 위원

그것은 이따가 찾아보고 다음 안건을 하죠. 다른 구청에 물어보시든지...

○ 000 주무관

예.

(사업관계자 등 입장)

○ 000 주무관

별도 심의도서는 없고 회의자료 6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팀장

여섯 번째 안건은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과 독성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에 대한 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허용기준안은 22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성동구청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또 다시 미타사 측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성동구청에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 000 주무관

성동구청에서 주민공람 해서 검토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 성동구청

저희가 애초에 미타사 측에서 용역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향후 주민공람한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공람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또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이번에 공람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드렸고 그분들이 공람내용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의견은 저희가 예상하시는 대로 1구역, 2구역, 3구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3구역까지도 1구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게 3구역으로 존치한다고 해서 여기를 개발행위를 문화재를 훼손하고 공사를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 개별심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도 스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다.

○ 000 위원

이 아파트 몇 년 됐어요?

○ 성동구청

아파트는 30년이 넘었습니다. 31년, 3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도 물론 중요하고…

○ 000 위원

재건축할 때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미리 할 것, 아닐 것 그것을 해서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어쩔 줄 모를 텐데 미리 그것을 예상해 놓고 해 주는 것도 조금…

○ 000 위원

1, 2, 3구역이 있는데 3구역까지 1구역으로 강하게 달라는 그렇게…

○ 000 위원

주민청취의견인데 주민이 아니라 미타사가 의견을 제출한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헛갈려요. 주민의견을 한 것이 아니라 미타사의 의견을 들고 오신 거고, 구청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성동구청

구청의 의견은 일단 관련부서 문서공람을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아파트 측 입주자들의 불편사항과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는 구청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렸고 구청장님께서도 부서 의견에 동의를 하셔서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두 차례 심의까지 완료되어서 더 이상의 심의는 사실 불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0323/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57/60

Email : sokgisa88@daum.net



현상을 유지하자는 이 얘기이신 거죠?

○ 사업관계자

저희가 보완해 드린 의견을 허용기준(안)을 최종으로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 000 팀장

퇴장하셔도 됩니다.

(사업관계자 등 퇴장)

지구단위계획 제16조 띄워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 000 위원

인사동.

○ 000 위원

인사동 제16조 건축지정선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대지의 건축물은 외벽선 한옥의 경우는 처마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옥의 경우는 처마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 000 위원

처마면 길에 나오면 안 되지.

○ 000 위원

3분의 2 이상을 건축지정선에 접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여기를 보면 지정된 건축지정선의 준수가 대지의 여건상 어려울 경우 변경여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갔다 오면 되는데 갔다 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 000 주무관

일단 관계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저쪽 부서에서는 문화재 심의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안 해줄 가능성...

○ 000 위원

여기 또 0.5m 이내의 변경은 구에서 할 수 있데요. 구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0.5m는 넘었죠?

○ 000 주무관

예, 그렇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용역을 또 만들어야 하고요. 도시위원회 상정하려고 하면...

○ 000 위원

아니, 지침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지정선을 개별 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지침에 있어요.

○ 000 위원

예외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 000 팀장

그러면 오늘 심의안건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000 주무관

첫 번째, 문화재 지정 전 사전심의 화계사 대방 건은 보류로 결정하셨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장조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지문 및 탕춘대성 성벽보수 및 주변정비는 조건부 가결로 해주셨고요. 지적사항 중에는 계단 보폭을 수정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흙막이 고정 철물 부식방지재료를 사용하도록 두 가지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회동 백인제가옥 안채 CCTV 설치는 원안가결했고, 회의시 논의된 내용은 사업담당자에게 전달해서 우려하신 사항들 발주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안건은 보류로 하고, 논의된 사항 도서 수정보완 및



이에 따른 구조 등 기술적 검토와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방안을 다시 한 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공람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의견을 접수해서 허용기준(안)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팀장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23년도 서울시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 - 오후 16시 14분)

